

“제과점에서 기술과 경영을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 제과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해 상생의 길을 찾아갑시다.”



## 지금은 상생(相生)을 생각할 때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유무상생(有無相生)’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 글자씩 풀이해보면 ‘유(有)는 무(無)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는 한정되었지만 ‘무’는 무한정이기 때문에 무욕(無慾), 무심(無心), 무념(無念) 같은 말들은 보이는 것과 달리 그 내면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있음과 없음이 서로 공존하는 화합을 강조한 노자의 사상에는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데 급급한 현대인들이 되새겨볼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너와 내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相生)’의 원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상생을 통한 화합만이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던 지난 세기의 과오를 바로 잡아 인류가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제과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세기에 불과한 우리나라 제과업계가 서방의 제과 중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힘을 발휘한 우리 제과인의 단결과 화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대한제과협회가 서있었습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제과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아 제과업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회원 모두가 함께 발전할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노력해왔습니다.

반목과 대립은 역사의 퇴보를 가져올 뿐 그 무엇도 발전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거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 비

상대책위원회 활동 또한 우리 제과인 모두가 단결해 일어섰기에 프렌차이즈 제과점의 제휴 할인율을 큰 폭으로 낮추고 자영 제과점에서도 똑같이 할인을 실시하는 등의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업계는 외형적인 성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돼 아예 일상이 돼버린 경기침체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외식업체들과의 무한 경쟁이 더해져 탈진상태에 빠졌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렇듯 어려운 시기일수록 화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입니다.

제과점에서 기술과 경영을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 제과인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대로 상생을 통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업계가 하나 되어 화합을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 된 제과인이 업계 경쟁력 키우기에 다함께 나설 때 우리가 만든 빵과 케이크 또한 국민적 사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업계는 지금 발전과 후퇴를 좌우하는 ‘양날의 칼’ 앞에 서 있습니다. 노자의 ‘유무상생(有無相生)’의 원리를 우리 모두 다함께 되새겨봅시다.

(사)대한제과협회 이진배 고문  
13~14대 중앙회장 역임